



靑於藍 국어

2015 지방직 7급

☆☆☆☆ 송병철 선생의 ☆☆☆☆

야무진 국어단과

문학+비문학+지문독해 완전분석

목/금/토 15:30-16:30

야무진 국어 특강 목,금,토 15:30~18:30 **누리마루국어 특강** 시간표 참조

문 1.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 ②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③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 ④ 국이 뜨겁고 매워서 먹지 못하겠다.



풀이 ④

④는 '맷다'가 ㅂ불규칙이기 때문에 'ㅂ'이 '우'로 바뀐 것이다.
 ①은 'ㅅ'불규칙 활용으로 ㅅ탈락, ②는 'ㄹ'탈락 규칙용언, ③은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한 '으 탈락'이다

문 2. 다음 중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 ② 사용 후 반듯이 물을 내려 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③ 화장실을 깨끗히 사용하십시오.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 ④ 지나친 흡연을 삼가하십시오. → 지나친 흡연을 삼가십시오.



풀이 ①

'피다'의 사동형이 '피우다'이다. 목적어 '담배를'이 있으므로 타동사 '피우다'를 써야 한다.

문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금고 가득히 눈부신 금괴가 쌓여 있었다.
- ②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기분 좋았다.
- ③ 소인은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반죽이 되게 묽어 국수 만들기가 힘들다.



풀이 ②

②는 형용사이다.
 '가볍다(형용사)+'게(부사형 전성어미)'의 형태로 품사는 형용사로 부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① 가득하다(형용사)+히(부사파생접사)
- ③ 없다(형용사)+이(부사 파생 접미사)
- ④ 되게 : '아주, 몹시'라는 뜻의 부사



문 4.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ㄷ, ㄹ, ㅇ'이다.
-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자 'ㄱ, ㄷ, ㅁ, ㅂ, ㅅ, ㅎ'도 포함된다.
- ③ 중성의 기본자는 '天, 地, 人'을 상형한 '·, ㅡ, ㅣ'이다.
- ④ 중성 11자에는 재출자 'ㅊ, ㅋ, ㆁ, ㆆ'도 포함된다.

풀이 ②

'전탁자'는 병서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글자로 17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 <자음>

초성 17자 체계(전탁 6자 더함)

구분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
어금닛소리(牙音)	ㄱ	ㅋ	ㅇ	ㄲ
혓소리(舌音)	ㄷ	ㅌ	ㄴ	ㄸ
입술소리(脣音)	ㅂ	ㅍ	ㅁ	ㅃ
잇소리 (齒音)	ㅈ	ㅊ		ㅉ
목구멍소리(喉音)	ㅎ	ㅎ		ㅎ
반혓소리(半舌音)				
반잇소리(半齒音)				

•<모음>

기본자 : 천지인을 본떠 만듦

구분	양성	음성	중성
기본자	· (하늘을 본뜬)	ㅡ (땅을 본뜬)	ㅣ (사람을 본뜬)
초출자	ㅏ, ㅑ	ㅓ, ㅕ	
재출자	ㅗ, ㅛ	ㅜ, ㅠ	

문 5.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 집 한 채나마 깎살릴 테냐?
- 깎살리다: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 ② 무릎을 꿇고 한참 입을 달막거렸다.
- 달막거리다:말할 듯이 입술이 자꾸 가볍게 열렸다 달했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③ 너 자꾸 자부락거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해라.
- 자부락거리다:가만히 있는 사람을 실없이 자꾸 건드려 귀찮게 하다.
- ④ 데생긴 감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 데생기다:생김새나 됨됨이가 번듯하고 실하다.

풀이 ④

접사 '데'는 몇몇 동사 앞에 붙어 '불완전하게' 또는 '불충분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예) 데되다, 데살다, 데생기다
'데생기다'는 '생김새나 됨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나게 생기다'는 뜻이다.

문 6.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개 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땅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골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추인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 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 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 리를 끼고 앉은 ‘화개 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 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 들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야장수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 들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 들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치고는 꽤 은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 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

는 것은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어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 나오는 그 한 맑고 멋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신과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으레 재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이 '화개 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 김동리, 역마 중에서 -

- ① 효정: '화개 장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군.
- ② 찬호: '화개 장터'의 시장적 기능에 이견을 보이고 있군.
- ③ 창수: '화개 장터'라는 말의 어원을 잘 설명하고 있군.
- ④ 송희: '화개 장터'가 지닌 매력에 대해 잘 알 수 있군.

풀이 ④

제시문은 "역마"의 발단 부분으로 배경과 그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 는 지리산 길에서 내려오는 산나물과, 하동길에서 올라오는 해산물과, 전라도의 구렛길에서 건너오는 생필품이 모이고 흩어지는 화개 장터를 배경으로, 사주에 역마살을 타고 난 '자연적인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제 길'을 가면서 펼치는 낭만적인 인생 유전극이다.

작품연구	김동리의 <역마(驛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래 : 단편 소설 • 배경 : 공간(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인 화개 장터) • 성격 : 무속적, 운명적, 토속적 • 시점 : 전지적작가 시점 • 문체 : 간결체 • 상징 : ① 역마 -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 ② 화개 - 남녀 간의 사랑 • 구성 : 단순 구성, 입체적 구성 • 제재 : 역마살이 낀 인간의 운명 • 주제 :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의 구원 문제, 팔자 소관에 순응함으로써 죽음에서 구제 받으려고 함.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됨. 한국적 운명관(역마살)에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성의 구현.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현 공?”
 “네?”
 “조선 민족이 대한 독립을 얼마나 갈망했소? 임시 정부 들어서길 얼마나 연연절절히 고대했소?”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자구 우리 현 공은 공산당으로 가셨소?”
 “제가 공산당으로 갔다고들 그러니까?”
 “자자합니다. 현 공이 아모래도 이용당허는 거라구.”
 “직원님께서도 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 공이 자진해 변했을진 몰라, 그래두 남한테 넘어갈 양반 아닌 건 난 알지요.”
 “감사합니다. 또 변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변했느니, 안 변했느니 하리만치 해방 전에 내가 제법 무슨 뚜렷한 태도를 가졌던 것도 아니구요. 원인은 해방 전엔 내 친구가 대부분이 소극적인 처세자들

인 때문입니다. 나는 해방 후에도 의연히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덴 반답니다.”
 “해방 후라고 사람의 도리야 어디 가겠소? 군자는 ()입니다.”
 “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선 이하(李下)에서라고 비뚤어진 것[冠]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현명이기보단 어리석음입니다. 처세주의는 저 하나만 생각하는 태입니다.”
 - 이태준, 해방 전후 중에서 -

- ① 不處嫌疑間 ② 一魚混全川 ③ 溫故而知新 ④ 苛政猛於虎

풀이 ①

해방전 이념적으로 동지적 관계였으나 해방후 이념적 차이로 대립하게 되는 김작원과 나(현)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현'은 '김 작원'을 "돌과 같이 완강한 머리" 혹은 "이 세계사의 대사조(大思潮) 속에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아 가는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한자성어를 찾으려면 되는데 () 뒤에 '이하(李下)에서라고 비뚤어진 것[冠]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보면 '혐 의를 받을 만한 곳은 가지 마라'의 의미를 지닌 '不處嫌疑間(불처혐의간)'이 답이 된다.

- ② 一魚混全川(일어혼전천) - 고기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
 ③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④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작품연구	이태준의 <해방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래: 단편 소설 • 의의: 해방을 전후한 문단의 상황은 물론, 이태준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작품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 - 해방을 전후한 1, 2년. 공간적 - 서울→철원→서울 • 주제: 해방 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 	

문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운거사(白雲居士)는 선생의 자호이니, 그 이름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자호 하게 된 취지는 선생의 백운어록(白雲語錄)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조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 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陶淵明)의 무리이리라.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의 기록이다. 거사는 취하면 시 읊으며 스스로 전(傳)을 짓고 스스로 찬(贊)을 지었 다.
 - 이규보, 백운거사전 중에서 -

- ① 세상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백운거사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백운거사의 불우한 삶에 대해 동경하는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유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백운거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풀이 ②

주어진 글은 백운거사의 소탈하면서도 술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정답이다.

작품연구	이규보의 <백운거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연대 : 고려시대 <li style="width: 50%;">• 작자 : 이규보 <li style="width: 50%;">• 형식 : 전 <li style="width: 50%;">• 주제 : 백운거사 인물 소개 	

문 9. 다음 글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으로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청산유수처럼 거침 없이 쏟아 놓는 말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쏟아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이 틀림없다.

- ① ㉠ ② ㉡ ③ ㉢ ④ ㉣

풀이 ③

㉠ 은유(A는 B다) 그릇(=말) ㉡ 직유: 청산유수처럼 ㉢은유(A는 B다) 말은 ~할 존재다.

문 1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재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가 분명히 상정될 수 있을 때 그에 상응하여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것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회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 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언어 분화가 쉬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었던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상민, 서얼 등)의 언어가 달랐다는 여럿의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라) 그렇더라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잡히다(잡히다)’ 등에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실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가)-(다)-(나)-(라) ② (가)-(라)-(나)-(다)
 ③ (나)-(다)-(가)-(라) ④ (나)-(라)-(가)-(다)

풀이 ③

(나)는 ‘사회계층의 개념과 사회적 접촉의 범위’가 진술되고, (다)는 ‘사회적 접촉과 언어의 분화’이 진술되었으므로 이 둘은 인접 단락에 해당한다.
 (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계층과 언어분화의 한계’를 진술하고 (라)는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진술하여 (가)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가)와 (라)는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 11.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②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③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④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풀이 ③

① ‘복종하다’가 불안전 자동사이므로 필수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 ㉠ 접두사 '제'는 뒷말에 붙여 적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하므로'는 동사 어간 '하-'에 까닭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므로'가 붙은 말이고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이다.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란 뜻이고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써)'란 뜻이다. 또한 '하므로'에는 '써'가 결합할 수 없지만 '함으로'에는 '써'가 결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 '데'가 의존명사인 경우 띄어 쓴다.
- ㉣ '있다'의 명사형 표기로는 '있음'이 옳다. '-(으)ㄴ' 명사형 어미의 표기는 자음 뒤에서 '-음', 모음 뒤에서 '-ㄴ'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있다, 없다' 등과 같이 'ㅅ, ㅂ' 받침 뒤에서는 명사형 표기를 '-음'으로 적든 '-슴'으로 적든 발음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읍니다', '-습니다'를 '-습니다'로 통일한 《표준어》 제17 항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문 16.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일 있을 한국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감독이 예전에 한술밥을 먹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A팀의 감독은 한때 B팀의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A팀의 감독은 시합에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 (이)라는 말이 맞을지, 내일의 경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① 管鮑之交
- ② 犬猿之間
- ③ 青出於藍
- ④ 草綠同色

풀이 ③

() 앞에 '형만 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와 반대 의미의 한자성어를 찾으면 된다. 그러므로 ③의 청출어람(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이 답이 된다.

- ① 관포지교 : 진한 우정을 뜻
- ② 견원지간 : 원수지간을 뜻
- ④ 초록동색 :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

문 17. 다음은 보고서의 목차이다.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

I.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 2. 세계 문자사와 한글의 창제 원리 ㉠
-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 ㉡

II.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 1. 정부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2.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III.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

- 1.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 확보의 미비
- 2. 한류 중심의 편향적 사업 계획
- 3.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 ㉣

IV.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

- ① ㉠
- ② ㉡
- ③ ㉢
- ④ ㉣

풀이 ①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상위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를 살펴 보아서 판단해야 한다. 불필요한 항목이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상위 항목이 하위항목을 포괄하고 있는지, 글의 통일성에 위배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의 '창제 원리'는 상위 개념인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

문 18.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음악으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큐브릭은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음악을 의뢰했었다. (㉠) 영화를 편집할 때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들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자 그는 그 음악들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다. (㉡)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지의 정신에 다다른 경이로운 장면들에 배경 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인 오락물과 결합할 때,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 ㉠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 ㉢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풀이 ②

㉠ 앞 뒤 내용을 보면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 음악을 의뢰했으나 그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역접('그러나, 하지만')이 들어가야 한다. ㉡의 앞뒤 문장은 인과관계(그래서, 그러므로)이다. ㉢은 클래식의 가치의 상반된 진술이므로 다시 역접이 들어가야 한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박넝에 싸오는 붕어꿈은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빨갈게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그 상 우엔 새파란 싸리를 그린 눈알만한 잔(盞)이 뵈였다.
 아들이아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빠드러진 나와 동갑이었다.
 울파주 밖에는 장꾼들을 따라와서 엄지의 젓을 빼는 망아지도 있었다.

- 백석, 주막 -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풍경을 강렬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지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④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풀이 ④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한 것은 없다.

- ① '빨갈게'와 '새파란'의 색채 대비
- ② 울파주, 엄지 등의 지역어를 사용
- ③ 앞니가 빠드러진 등의 묘사

작품연구 **백석의 <주막(酒幕)>**

- 특징
 - ①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냄.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주제 : 어린 시절 푸근한 주막의 모습

문 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땡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 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러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 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때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툽밥이 툽툽 튀어 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다…….”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의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 임철우, 사평역 중에서 -

- ①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계기의 역할을 한다.
- ②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
- ③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 ④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풀이 ③

본 작품은 중심인물이 따로 설정되지 않고 아홉 명의 인간 군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이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사평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등장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있다.

작품연구	임철우의 <사평역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래 : 단편소설 •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 배경: 70~80년대 어느 겨울밤의 간이역 •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 • 구성: 현재장면과 회상장면의 교차 구성 • 제재: 사평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 주제: 간이역 대합실의 정경과 기다리는 사람들 	